

Beyond the WORK

THE MAGAZINE OF FUTURE WORKS

ISSUE 15. / 2023. 12



반려동물산업

500만 반려가구 시대, 펫 비즈니스의 필연적 성장

동물영화제 집행위원장 × 임순례

올리브동물병원 대표 원장 × 박정운

위드랜드 대표 × 이규봉

삼성화재 안내견학교 교장 × 박태진

지금 이 순간, '사랑하개' <베일리 어게인 A Dog's Purpose>

댕댕이, 냥냥이와 함께하는 직업



Beyond the WORK

ISSUE 15.

지금
일자리 너머,
미래 직업을 만나다

반려동물산업

Beyond the WORK은 한국고용정보원 미래직업연구팀에서 발행하는 미래 직업세계 주제의 웹진입니다.

04 INTRO 500만 반려가구 시대, 펫 비즈니스의 필연적 성장

10 BEYOND THE 人 동물영화제 집행위원장 × 임순례

16 INTERVIEW 올리브동물병원 대표 원장 × 박정윤

22 INTERVIEW 위드랜드 대표 × 이규봉

28 INTERVIEW PLUS 삼성화재 안내견학교 교장 × 박태진

36 JOB IN MOVIE 지금 이 순간, '사랑하개' <베일리 어게인 A Dog's Purpose>

38 알/솔/신/잡 댕댕이, 냥냥이와 함께하는 직업



펫코노미 Petconomy
500만 반려가구 시대,
펫 비즈니스의
필연적 성장

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 확대,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생활 같은 사회적 변화가 펫(Pet) 시장의 성장세를 이끌고 있다. 반려동물의 태생부터 관리, 사후 과정까지, 한 생명체의 라이프사이클 전체에 관여하는 펫 비즈니스의 필연적 성장이 도드라진다. 펫코노미로 불리는 펫 비즈니스를 돌아본다.

팬데믹이 가져온 펫 인구 효과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받아들인 ‘반려인’ 인구가 천만을 넘어섰다. 거리나 공원, 마트에서 반려동물을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최근 발표된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는 552만 가구에 달한다. 2020년 말의 536만 가구와 비교했을 때 2.8% 증가한 수치다. 이는 전체 가구의 25.7%로, 국내 반려인 수는 1,262만 명을 기록했다.

네 가구당 한 집이 개나 고양이 등을 반려동물로 기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발표 역시 비슷한 수치를 나타낸다. ‘2022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현재 거주지에서 직접 양육하는 비율은 25.4%로 나타났다. 또한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75.6%가 ‘개’를 기르고 있었고, ‘고양이’ 27.7%, ‘물고기’ 7.3% 순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엄청난 수치로 반려인이 증가한 데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언택트 문화의 확산이다. 사실 언택트 문화는 이전부터 점진적으로 늘어났지만, 2020년 코로나19가 가져온 팬데믹은 이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했다. 팬데믹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재택근무, 온라인 원격수업, 격리 생활 장기화 등과 정부의 고강도 거리 두기

정책 등이 외부와 접촉을 차단하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반려동물과 시간을 보내는 보호자를 증가시켰다는 분석이다.

또한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문화가 늘어나면서 이에 부담을 느꼈던 비(非)반려인들의 부담을 줄이기도 했다. 실제로 한국관광공사의 ‘반려동물 동반여행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인들의 최근 1년 이내 국내 여행 횟수는 평균 3.3회로, ‘당일 여행’ 평균 2.1회, ‘숙박 여행’ 평균 1.2회로 나타났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2021 캠핑이용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캠핑이용자 중 69.2%는 캠핑 시 반려동물을 동반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캠핑장이나 자연으로 나가는 여행이 팬데믹과 맞물려 반려인을 대폭 증가시켰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반려동물과 경제의 합성어, 펫코노미

반려동물 인구가 증가하면서 필연적으로 산업 역시 성장했다. 시장의 규모가 커지며 반려동물 관련 산업은 프리미엄화되고, 반려인들의 다양한 소비 수요를 겨냥해 더욱 다양하게 확장되고 있다. 삼정 KPMG 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반려동물 비즈니스의 주요 트렌드는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사람의 제품처럼 세분화되고 사람이 먹는 제품과 같은 원료로 제조된 사료가 등장하며 반려동물의 인간화(휴머니제이션 Humanization) 심화가 가져온 펫푸드가 첫 번째다.

두 번째는 반려인과 반려동물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첨단 ICT 기술이 펫 제품에 접목되는 펫테크가 진화 중이다. 세 번째는 펫 비즈니스와 금융상품을 결합한 펫적금, 펫신탁, 펫카드, 펫보험 등 부상하는 펫금융을 들 수 있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 현황



반려가구
552만 가구



반려인
1,262만 명



반려가구의 월평균 총양육비
154,000원

자료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



네 번째는 펫플레이다. 펫플레이란 펫푸드, 의료 서비스 등 반려동물이 필요로 하는 항목 외에 반려동물의 레저생활, 여행 등 라이프스타일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다수 서비스가 등장한 현상을 일컫는다. 마지막으로 펫리빙인데,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 펫의 태생부터 죽음까지 함께하려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주거형태, 장묘방식 등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반려동물의 리빙 제품이 증가하는 것을 트렌드로 들 수 있다.

이 모든 것을 통합한 단어가 바로 펫코노미(Petconomy)다. 반려동물(Pet)과 경제(Economy)의 합성어인 펫코노미는 반려동물과 연관된 모든 생산이나 소비 활동을 뜻한다. 사료 외에도 펫택시, 반려동물을 위한 유치원, 장례서비스, IT 결합상품 등 다양한 신규 서비스가 오늘날의 펫코노미를 이루고 있다.

가장 '핫'한 산업, 펫 비즈니스

좀 더 구체적인 펫코노미의 발전 사례를 보자.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사료다. 반려동물의 연령대를 세분화하고 이를 위한 기능성 펫푸드가 늘어나자 펫 사료 산업에 뛰어드는 대기업도 증가했다. CJ제일제당은 기존의 '오프레시'에 프리미엄 브랜드 '오네이처'를 론칭해 고급화 전략을 세웠고, 하림은 '더리얼', '더리얼 그레인프리' 등 사람이 먹는 식품 수준의 펫푸드를 제조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은 2017년 수의사들과 공동연구를 통한 '아이펫밀크'로 펫밀크 시장을 공략했고, KCC인삼공사도 홍삼과 연어, 오리 등을 사용한 반려동물 건강식품을 출시했다. 펫테크 역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스마트 목걸이와 사료 그릇부터 모바일 앱과 원격진료 수의사 상담까지 모든 것이 포함된다. 국내 기업인 위너텍은 반려동물 생체신호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인 '스마트 핏링' 기술을 개발했으며,



반려동물 종별 양육 비율



자료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

펫위즈는 반려동물의 질병 징후를 감지할 수 있는 스마트 카메라를 개발했다. 대형 금융사를 비롯해 보험사 역시 펫금융에 뛰어들었다.

특히 펫보험이 활성화되자 금융당국은 반려동물 관련 진료, 등록체계 인프라 등을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정부가 펫보험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한 만큼 펫보험 활성화 방안을 준비 중이며 구체적인 방안은 정부, 관계기관과 이해관계자 논의를 거쳐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다.

반려동물을 위한 차별화된 인테리어를 제공하는 펫리빙 산업도 활발하게 발전 중이다. 반려동물과 함께 숙박할 수 있는 호텔이 늘어나거나 반려동물 운송 경비에 대한 할인 이벤트를 제공하는 항공서비스 등 펫플레이를 비롯해, 반려동물을 위한 차별화된 인테리어를 제공하는 펫리빙 산업도 활발하게 발전 중이다. 안강건설, 동광건설, 대림건설 등 중견 건설사들은 신축 도시형 생활주택에 IoT(사물인터넷)에 기반한 반려동물 전용 펫스테이션을 설치하거나 일부 가구에 '위드펫(With Pet)' 타입을 적용할 예정이다.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가져온 새로운 가족 구성의 변화는 이제 트렌드가 아닌 일상이 됐다. 반려동물 가족문화의 정착과 더불어, 그에 따라 반려동물산업 또한 전방위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려동물 입양, 가족을 책임지는 일

동물영화제 집행위원장 임순례 감독

<교섭>, <리틀 포레스트>,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등을 연출한 임순례 감독은 영화감독이자 동물보호 활동가이다. ‘동물권행동 카라’의 대표로 12년간 활동하고, 현재는 카라와 함께 동물영화제를 꾸려 영화와 동물 모두를 사랑하는 중이다.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12년간 ‘동물권행동 카라(KARA)’의 대표를 지냈고, 현재는 카라의 이사이자 동물영화제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영화감독 임순례입니다.

동물권행동 카라와 감독님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카라는 2002년에 만들어진 단체예요. 그때는 카라가 아니고 ‘아름품’이라는 이름의 동물보호단체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항상 집에 동물이 있었는데 영화를 시작하고는 직업이 불안정하다 보니 동물 없이 지냈어요. 그러다 2000년에 진돗개를 한 마리 입양해 키웠는데 2004년에 그 진돗개를 잃어버렸어요. 그 아이를 찾는 과정에서 아름답 활동가를 만나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동물단체에 대해 전혀 몰랐고, 그 친구를 통해 동물단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저희 개를 찾아다니면서 포천에 있는 대형 보호소들의 실상에 대해서도 알게 됐어요. 그 친구를 통해 2005년쯤에 아름답에 명예이사라는 게 있는데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명예이사가 뭐 하는 거냐 물었더니 그냥 하는 게 없대요. 제가 영화감독이니카 이름만 올려주면 된다고 해서 인연이 시작되었죠. 2007년에 아름답에서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로 이름을 바꿨는데, 그때 대표를 하시던 분이 정년퇴임한 교수님이셨는데 연세가 너무 많아 더는 못하시겠다고 해서 후임을 찾던 중에 제게 제안이 왔어요. 2007년 제가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이라는 영화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너무 바쁘기도 해서 영화 핑계를 대고 어렵다고 했더니, 영화 다 찍으려면 얼마나 걸리냐고 물어세요. 2년 넘게 걸린다고 말씀드렸더니 이분들이 2년 동안 대표를 안 뽑고 저를 기다리셨어요. 그래도 제가 선뜻 받지는 못했어요. 영화라는 일이 굉장히 복잡하고, 영화를 안 찍어도 머릿속은 항상 영화와 연관돼 있어야 해서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정부기구)의 대표를 맡는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을 개봉했는데 영화가 잘 됐잖아요. 제가 원래 티벳교에 관심이 있어서 티벳 망명정부가 있는 인도 다람살라에 달라이라마 존자님의 법회가 있어 그걸 들으러 갔어요. 법회 내용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어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왔겠지만 실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좀 했었어요. 나중에 영화 은퇴하고 시간이 좀 많으면 그때 자원봉사 개념으로 봉사해야겠다 생각하는 정도였는데, 그 고민을 하면서

내가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영화만 생각하는 건가? 했을 때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나눠서 카라 일을 하고 나머지 시간엔 영화를 찍자는 생각을 했죠. 그때는 카라가 이렇게 큰 단체가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수락을 한 건데 제가 일복이 많은 건지 가수 이효리씨와 연결이 되면서 덕분에 몇 년 만에 단체가 엄청 커졌어요.

동물권행동 카라는 어떤 일을 하는 시민단체인지 알려주세요.

동물을 구조해 입양을 보내는 동물복지에 관한 일, 시민들의 의식을 바꾸기 위한 교육, 동물보호법을 바꾸기 위한 입법 활동과 정책 활동, 캠페인 등 다양한 일을 합니다. 종합적으로 동물에 관한 모든 일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2000년대 초반, 여러 동물단체가 출발했는데 카라도 그 중 하나였죠. 많은 단체들이 동물구조에 집중하는데, 사실 시민들로부터 후원을 받기에는 구조활동이 제일 좋기는 해요. 사람들이 동물구조 전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카라는 동물 몇 마리 구조해서는 우리 사회가 바뀌지 않으니까 시민들의 의식을 바꾸고 법과 제도를 바꾸는 일에 중점을 두기로 했어요. 좋은 취지기는 한데 후원은 잘 안 돼요.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동물보호소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없어요. 정부 지원이라면 유기동물을 구조했을 때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계류기간 10일 동안 먹고 자는 비용, 안락사 처리비용 정도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동물단체나 개인 활동가들이 사설 보호소를 운영하고 있는 형편이죠.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문화도 많이 바뀌고 발전하지 않았나요?

제가 카라에 들어와 활동한 게 15년 정도라고 하면, 그 사이 많이 바뀌긴 했어요. 초창기 저희가 개식용 반대 시위를 하러 거리로 나가면 사람들의 반응은 ‘먹고 살기 힘든데 뭘 짓이나’는 식이었는데 지금은 같이 응원해 주세요. 또 시민들이 예전에는 자기가 키우는 반려동물, 유기동물 정도에 관심이 있었다면 최근에는 동물의 권리에 대해서도 관심이 확장되고 있는 걸 느껴요. 동물원 동물이나

동물원 쇼를 반대한다든지, 채식 인구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죠. 그리고 저희가 시민단체다 보니까 후원자들의 후원회비로 운영이 되는데, 관심이 커지면서 동물단체에 후원해주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어요.

반려동물 문화, 반려동물 산업의 성장 이면에 가려진, 공유하고 싶은 이슈는 무엇일까요?

<TV 동물농장>에도 방영된 적이 있는데, 동물보호단체들과 협업해 허가된 펫샵 강아지 공장에서 1,400마리가 넘는 강아지를 구조했어요. 유기동물을 입양하지 않고 펫샵에서 동물을 사는데 얼마나 큰 동물학대인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농장 동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굳이 안 보고 싶잖아요. 어떻게 키워지고 어떻게 도살되는지를 알면 아마 못 먹을 거예요. 너무나 비참하고 열악하게 살고 있고, 도살될 때도 그래요. 그래서 비건까지는 어렵더라도 육식을 좀 줄이는 일에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외에도 동물 쇼나 아쿠아랜드의 해양생물, 실험동물, 야생동물 체험 카페... 열거하자면 너무 많은 문제들에 관심이 필요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개나 고양이가 같은 반려동물이 가족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감독님이 입법자가 된다면 어떤 동물법을 만들고 싶으세요?

너무 많죠. 제일 시급한 것은 개식용 금지법인 것 같아요. 왜냐면 개를 먹는 상황에서 다른 동물복지나 동물권을 논의하기가 어렵다고 보거든요. 개식용 금지법이 제정돼야 그 다음 단계로 동물원이나 야생동물 체험 펜션, 이런

것을 엄격한 허가제로 바꿀 수 있어요. 지금은 신고만 하면 되는데, 허가제로 바뀐다면 관리하고 감시하고 처벌할 수 있는 동물학대법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현재도 동물학대에 대해 징역 3년에 3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아무리 잔인하게 동물을 죽여도 대부분의 동물학대범이 집행유예로 풀려나요. 너무 인간 중심적인 판결이라 아쉬워요. 요즘 온라인상에서 동물학대가 굉장히 극심해지고 있어요. 좀더 강력한 처벌과 감시가 필요해요. 외국에는 동물을 학대했을 때 주인과 동물을 바로 격리할 수 있는 법도 있어요.

동물권행동 카라에서 경기도 파주에 ‘더봄센터’라는 동물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어요. 센터를 통해 치료받은 동물, 새 가족을 만난 동물들 소식을 들려주세요.

더봄센터를 거쳐간 아이들은 대부분 개농장 등 열악한 시설에 방치된 개들이에요. 대부분이 진도 믹스견 등 품종개가 아니죠. 따라서 입양률이 높지는 않아요. 게다가 방치 후 구조된 아이들이라 병도 많고 대형견들이에요. 국내에 입양되기 힘들어 주로 해외 입양이 이뤄지고 있어요. 해외로 보내게 되면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 아이들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커서 사회화 과정에도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죠. 숫자로 엄청나지는 않지만 꾸준히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에서는 이 동물이 사람과 잘 지낼 수 있는지, 다른 동물과도 잘 지낼 수 있는지가 중요해서 그것을 훈련시키는 시간과 정성, 노력이 상당히 필요해요.

반려인구가 느는 만큼 유기동물의 수도 늘고 있어요. 반려동물 입양에 앞서 꼭 고민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요즘에는 반려동물도 20년 가까이 살아요. 내 반려동물이 무지개다리를 건널 때까지 어떤 상황이 생겨도 책임을 질 수 있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젊은 친구들이 입양을 하게 되면, 만약 내가 스무 살에 입양을 한다면 그 사이 군대도 가고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고 유학도 가고 이사도 갈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사람 가족이면 버리진 않잖아요. 어떤 경우라도 같이 유학을 가거나 이사를 가잖아요. 그래서 말로만 가족이 아니라, 내가 끝까지 책임질 준비가 돼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어린이날 선물로 사주지 말고, SNS에 자랑하려고 사지 말고, 품종의 인기가 시들해진다고 다른 아이로 바꾸지 말고 끝까지 책임졌으면 해요. 동물을 제대로 관리하고





키우려면 돈도 많이 들어요. 아프면 병원 데려가야 하고, 좋은 것도 먹이고 싶어요. 경제적인 상황도 허락돼야 하고, 내 생활 패턴도 고려해야 해요. 내가 하루에 이 아이랑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많은지, 산책은 잘 시켜줄 수 있는지,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20년 동안 내 가족이에요. 그럴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절대 키우면 안 돼요.

동물권행동 카라에는 어떤 인재들이 함께 일하고 있나요?

서너 파트가 함께 일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돌봄 활동가예요. 카라의 더봄센터에 현재 350마리 정도의 동물들이 있어요. 돌봄 활동가들은 아침에 출근해 그 아이들 먹이고 청소하고 산책시키고 돌보는 일을 해요. 두 번째는 센터에 저희 병원이 있어요. 수의사들과 테크니션들이 있어요. 세 번째는 정책/교육/홍보팀처럼 정책수립 및 입법활동, 동물권 교육과 홍보를 담당하는 일을 하는 팀이 있고, 네 번째는 회원관리나 회계/운영팀 등 카라의 전체 살림을 돌보는 팀도 있습니다. 동물을 위해 일하는 NGO 활동가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다른 직장에 비해 돈을 많이 받지 못하지만 동물을 위해 유익한 활동을 하는 보람이 있는 일이에요. 동물을 사랑하고, 동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활동가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동물행동권 카라와 같은 동물보호단체에서 함께 일하고 싶은 인재상을 알려주세요.

동물을 위해서 내가 어느 부분을 희생할 수 있는가가 중요해요. 사실, 활동을 할 수 있는 분야는 많아요. 수의사,

저희와 협업하는 변호사, 캠페이너, 디자이너, 영화제 프로그래머 등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일로 활동할 수도 있고, 시간이 허락되면 더봄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친구에게 DM을 받았는데, 자기는 변호사가 돼서 동물의 권리를 위해 일하고 싶다고 했어요. 모든 영역이 동물을 위해 연결될 수 있어요.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활동할 수도 있고, 봉사를 할 수도 있죠. 또 직업으로 상근 활동가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카라의 활동가들에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일반 기업에 가면 돈은 훨씬 많이 받겠지만 나의 가치와 자아를 실현하는 부분은 작을 수도 있다. 돈 대신 가치로 환산하면 더 의미있는 직업일 수 있다고요. 헌신할 자세가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영역의 일들이 많아요.

감독님의 반려동물을 소개해주세요.

14살 믹스견, 겨울이가 있어요. 유기동물로 보호소에 있던 아이인데 계류기간이 지나도 주인이 찾아가거나 새로운 입양자가 나타나지 않아 안락사될 뻔했던 아이예요. 이런 경우 보통 개인활동가들이 임시보호하다가 입양을 보내는데, 3개월째 구조됐는데 처음 구조한 친구가 제게 리트리버 새끼라고 했어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리트리버는 커녕 지금 다 컸어도 7kg밖에 안나가는 믹스견이에요.

돌고래가 주인공인 영화를 준비하신다고 들었어요.

제들이 방류 10주년이기도 하고(2013년 기준) 제가 제들이 방류준비 시민위원회 일원이기도 했으며, 돌고래 방류와 서울대공원에서 돌고래쇼를 폐지한것이 동물권 운동에서 갖는 의미가 매우 크기 때문에 몇년전부터 제들이 영화를 준비해 왔습니다만 요즘 영화계 투자 상황이 쉽지않은 않아서 지금은 OTT드라마를 먼저 준비하고 있습니다.🐬



늙고 아픈 동물들과 함께 성장해요

올리브동물병원
박정운 대표 원장

수의사는 말 못하는 동물을 진료하는 의사이자, 동물과 사람을 잇는 중개자이다. 늙고 볼품없는 노령동물의 건강을 돌보는 올리브동물병원 박정운 대표 원장을 만나 반려동물, 노령동물, 그들의 사람 가족 이야기를 듣는다.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동물을 사랑하고 사람을 좋아하는 박정운 수의사입니다. 노령동물 진료를 중심으로 하는 올리브 동물병원의 대표 원장으로 있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청소년들이 제일 관심 있는 직업 중 하나가 수의사라는 직업이에요. 수의사가 된 계기를 소개해주세요.

처음에는 그냥 동물이 좋았어요. 강아지, 고양이, 병아리같은. 아파트에 살았는데 매년 병아리를 키웠던 것 같아요. 별 뜻 없이 '나는 동물이 좋으니까 동물과 관련된 행복한 직업을 찾아야지'라고 생각해 수의학과에 진학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수의학을 전공해보니 예쁘고 귀여운 아이들은 동물병원에 안 오더라고요. 아프고 나이든 동물들이 주로 오는 곳이 동물병원이어서 일단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저는 오히려 이 일을 하면서 동물에 대해 좀더 진지하게 고민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픈 동물들을 만난 덕분에 그 동물들이 제게는 스승이 되었고, 사람도 동물도 더 잘 공부하는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제가 임상 15년 차예요. 임상이라는 게 사실은 사람을 만나는 직업이에요. 아픈 동물을 진료하지만 그 진료를 하도록 선택하는 건 또 다른 사람이거든요. 일을 하면서 사람에 대한 윤리적 딜레마도 겪게 되고, 수의사는 단순히 동물을 치료하는 직업이라고만 생각하지만 실제로 진료를 하면서 동물의 편에서 동물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직업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미처 배우지 못한 인문학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 보다 근본적인 동물에 대한 접근을 하고 싶어서 서울대학교 수의인문학 교실에서 대학원과정에 있어요.

수의대에도 의료인문학 과정이 있네요.

수의대에서도 수의인문학이라고 인간과 동물의 관계, 그리고 동물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 등에 대해 공부해요. 요즘 우리 사회가 비인간 동물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죠. 우리가 문화나 사회에서 흔히 접하는 동물에 대해 좀더 집중적으로 보는 학문이에요. 동물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 동물은 어떤 존재인지, 동물은 무엇을 아는지, 동물은 어디까지 생각하고 사고하는지를 굉장히 의인화시켜서 생각하기도 하고,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걸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곳이에요. 그러면서 동물을 위해 할 수 있는 윤리적인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요.

수의사라는 일을 하면서 느끼는 보람과 어려움을 알려주세요.

사실 매 순간 힘들고, 매 순간 보람 있어요. 제일 보람 있을 때는 동물 환자들이 밥을 못 먹고 와서 밥 먹을 때예요. 그래서 저희 동물 환자들이 밥을 먹기 시작하면 전부 다 카메라로 영상을 촬영해요. 그 순간이 사실 제일 기쁘죠.

가장 힘들 때는, 저희가 한 곳에서 오래 병원을 운영하다 보니 노령동물 진료를 많이 보게 돼요. 정이 많이 들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어쩔 수 없이 이별해야 하는 때가 오죠. 그 이별의 순간, 진짜 가족들만큼 마음이 무너져요. 보내줘야 될 때, 이별할 때 많이 힘들어요. 또 다른 경우는, 아픈 동물이 있고 그 동물을 진료하고 싶어도 보호자인 사람이 진료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보내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사람의 욕심으로 아픈 동물을 계속 끌어안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럴 때 우리가 해줘야 하는 것들이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무력감, 그런 거 때문에 힘들죠.

동물진료 외에 동물권행동 카라의 자문 수의사, 사육곰 구조, 유튜브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세요. 이런 다양한 동물보호 활동을 하는 특별한 이유나 목표가 있나요?

특별한 사명감 때문에 한 건 아니고요. 그냥 동물이 좋아서 이 일을 시작했는데 동물의 편에 있어 주는 게 수의사의 일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죠.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강아지, 고양이가 좋아서 반려동물 진료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 밖에 사는 동네 고양이들이 보이고, 또 동네 고양이를

보다 보니 동물원에 갇혀 있는 동물들이 보이고, 그러다 웅담 때문에 철창에 갇혀 사는 사육곰이 보이는 거요. 곰은 수명이 25년에서 30년 정도예요. 사육곰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철창 밖에 나와본 적이 없어요. 지금 우리 중에 웅담을 먹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요. 그럼에도 수십 년 전에 만들어져 육성됐던 산업 때문에 그냥 농가의 철창에서 음식 쓰레기를 먹으며 살아요. 그 동물들을 아무도 처리를 못 해주는 거예요. 명색이 수의사인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 동물들에게 약을 지어서 먹여준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개네들을 데리고 나와서 씻겨줄 수도 없어요. 그냥 그들에게 바라는 건 빨리 죽는 거 외엔 없을 거예요. 그게 너무 무력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고, 알려지면 바뀔 여지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수의사는 아픈 동물을 치료하는 것만이 아니고 동물의 편에서 동물의 목소리를 내주는 것, 그들의 대변인이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라 그 신념대로 활동하고 있어요.

이런 활동을 하면서 목표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스스로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서 동물에 대한 예의를 모르는 사람도 적지 않아요. 예의는 손윗사람에게만 갖추는 태도가 아니잖아요? 누군가를 좋아한다면, 매너나 예의를 갖추는게 당연한데 그걸 잘 모르는거죠. 우리는 사실 동물에 대한 예의와 존중은 배운 적이 거의 없으니까요. 저는 그런 교육을 하고 싶어요.

올리브동물병원은 노령동물병원이에요. 일반 동물들을 치료하는 것과 차이가 있나요?

노령동물병원을 제가 일부터 해야겠다고 생각한 건 아니었어요. 어쩌다 보니까 한 곳에 오래 있기도 했고, 또 알려진 병원이다 보니 나이든 동물들이 조금 많이 왔죠. 그러면서 그 동물들이 제게 준 어떤 매력이 너무 컸어요. 나이든 동물들을 보면 살아온 시간이 보여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보호자 분과 동물이 같이 앉아 있으면 닳았어요. 분위기나 이미지가 되게 닳아서 이 동물들의 삶에 시간이 묻어있는 게 보여서 재밌죠. 그래서 나이든 동물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일반적인 진료에서는 교과서대로 진단을 하고 그에 맞는 처치를 하면 예후가 예상돼요. 그런데 나이든 아이들은 좀 달라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냥 다리가 아파서 왔는데 알고 보면 심장병이 있고 간에 혹도 있고 콩팥에 결석이 있을 때도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뭐부터 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게 중요해요. 이 모든 치료를 다 해버리면 애네들이 기계가 아니니까 버텨낼 수 없을 거예요. 우선순위에 대해 굉장히 입체적으로 고민을 해야 하는 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이 친구들이 환경이 바뀌는 데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커요. 수술 후 회복 탄력성도 젊은 동물들보다 훨씬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많아요. 주어진 대로 처치를 다 해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못하거나 뜻밖의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능숙한, 그리고 오래된 테크니션 선생님들과 수의사, 그리고 보호자의 합이 맞아야 하는 거죠.

치료했던 동물과 보호자로 오셨던 분 중 기억에 남는 분이 있나요?

노령동물을 치료하는 게 생각보다 진짜 힘들어요.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육체적 피로도 굉장히 커요. 진단도 왔다갔다 할 때가 있고 변수도 많죠. 여러 가지를 계속 신경써야 하니까 선생님들도 중간에 많이 그만두기도 해요. 그런데 그만큼 보람이 있어요. 누군가의 마지막을 저희가 잘 지켜줄

수 있으니까요. 이별을 하는 건 정해져 있는데 그 이별의 순간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별까지 투병의 시간이 어떠냐에 따라 가족들이 그 동물을 기억하는 게 달라져요. 펫로스도 그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힘들고 슬픈 이별이긴 하지만 그 마지막을 잘 지켜주면 떠난 아이를 추억하는데 좀더 힘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누군가의 마지막을 지켜줄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도 사실 보호자 분이세요. 기억에 남는 보호자 분이시죠.

15살 정도 된 시추 아이를 키우던 커플 보호자였는데, 너무나 예쁘게 아이의 습관들을 유지하면서 잘 돌봐주셨어요. 늙고 병들어 볼품없는 아이의 마지막 모습에 마음이 쓰이셨나 봐요. 아이와 이별 후,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마지막까지의 사진들을 예쁘게 오리고 사연을 적어 파일을 만들어 오셨어요. 저희에게 고맙다고 선물을 하시는데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생각해 보면, 제가 진료를 보는 12살, 13살, 10살이 훌쩍 넘는 아이들에게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사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됐어요. 떠난 아이를 기억할 때 우리가 작은 조각이라도 기억의 일부가 되고, 그 마음을 계속 기억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서 이 일을 놓지는 못할 것 같아요.

동물병원에서 함께 일하고 계신 동료들도 소개해주세요.

저희는 현재 수의사 4명, 간호사 8명, 미용사 선생님 2명, 그리고 매니저 선생님 3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그리고 점심을 책임져주시는 이모님과 주차를 담당해주시는 실장님이 계시는데 저희 병원의 자랑은 어벤져스급의 동물보건사 선생님들이에요. 그 8명의 합이 어마어마해요. 각각 개성이 다 다른데 어떻게 하나같이 좋은 분들이 오시는지 너무 감사해요. 그분들이 없다면 이 일을 계속하지 못할 것 같아요. 사람은 채혈을 하자고 하면 손을 내밀고 가만히 있잖아요. 조금 아파도 참고요. 동물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손발이 맞는 보건사 선생님들이 안 계시면 진료가 어려워요. 그리고 수의사는 진단을 하고 처치를 할 수 있지만, 동물환자를 케어해주는 건 보건사 선생님들의 몫이에요. 그래서 훌륭한 선생님들과 함께 일한다는 건 무척 감사한 일이죠.

수의사를 꿈꾸는 이들이 많아요.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조언을 해주세요.

우선, 수의사를 하려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동물이 좋아서 하는 건지, 아니면 동물만 좋아서 하는 건지, 혹은 진짜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하는 건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국가고시로 수의사 자격을 따게 되면, 면허가 있는 상태에서 굳이 임상 수의사가 아니어도 다양한 분야에서 일할 수 있어요. 검역원도 있고 제약회사도 있고 다른 여러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데 임상 수의사를 하겠다면, 내 시간과 노력을 그만큼 기울일 수 있을까를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주말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보호자들이 동물 환자와 주말에 진료를 보러 오시기 때문에 주말에도 일하는 경우가 많아요. 친구들이 다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위해 일해보겠다고 기꺼이 하셔도 좋고요. 두 번째는 사람은 싫고 동물만 좋은 경우.

수의사라는 직업은 동물만 좋아해서는 절대 행복할 수 없는 직업이에요. 사람도 좋아해야 해요. 동물만큼이나 사람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사람과 동물을 이어주는 끈이 되겠다고 마음먹는다면, 수의사라는 직업은 굉장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인구가 점점 늘고 있어요. 그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어렵네요. 동물은 사람이 아니에요. 반려동물을 아끼고 사랑해주는 가족들이 많아지는 건 좋은데, 한편으로는 동물을 동물로 존중해주기보다 사람 아기와 흡사하게 키우는 분들이 있어서 약간 걱정이 돼요. 그만큼 기울이는 관심과 애정은 좋지만, 그러다 보면 동물을 이해하는데 사람이라는 렌즈를 끼고 보게 되거든요. 사람의 감정과 사고의 틀로 동물을 바라보면 소통이 어려워요.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동물을 꾸짖으면 동물은 오해를 하게 되고, 오해하는 동물 때문에 사람이 속상해지는 문제가 생기죠. 누군가를 사랑하고 좋아하면 그 사람에게 대해 궁금해지는 것처럼, 동물을 키우시려면 그 동물에 대해 궁금해하시면 좋겠어요. 내 욕구와 의도를 이해시켜려 하기보다는 ‘이 동물이 왜 이러지?’ 궁금해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요? 🐾



올리브동물병원 대표원장 박정윤 수의사 인터뷰 영상보기



반려가족 위한 애견리조트 전국망 구축

위드랜드 이규봉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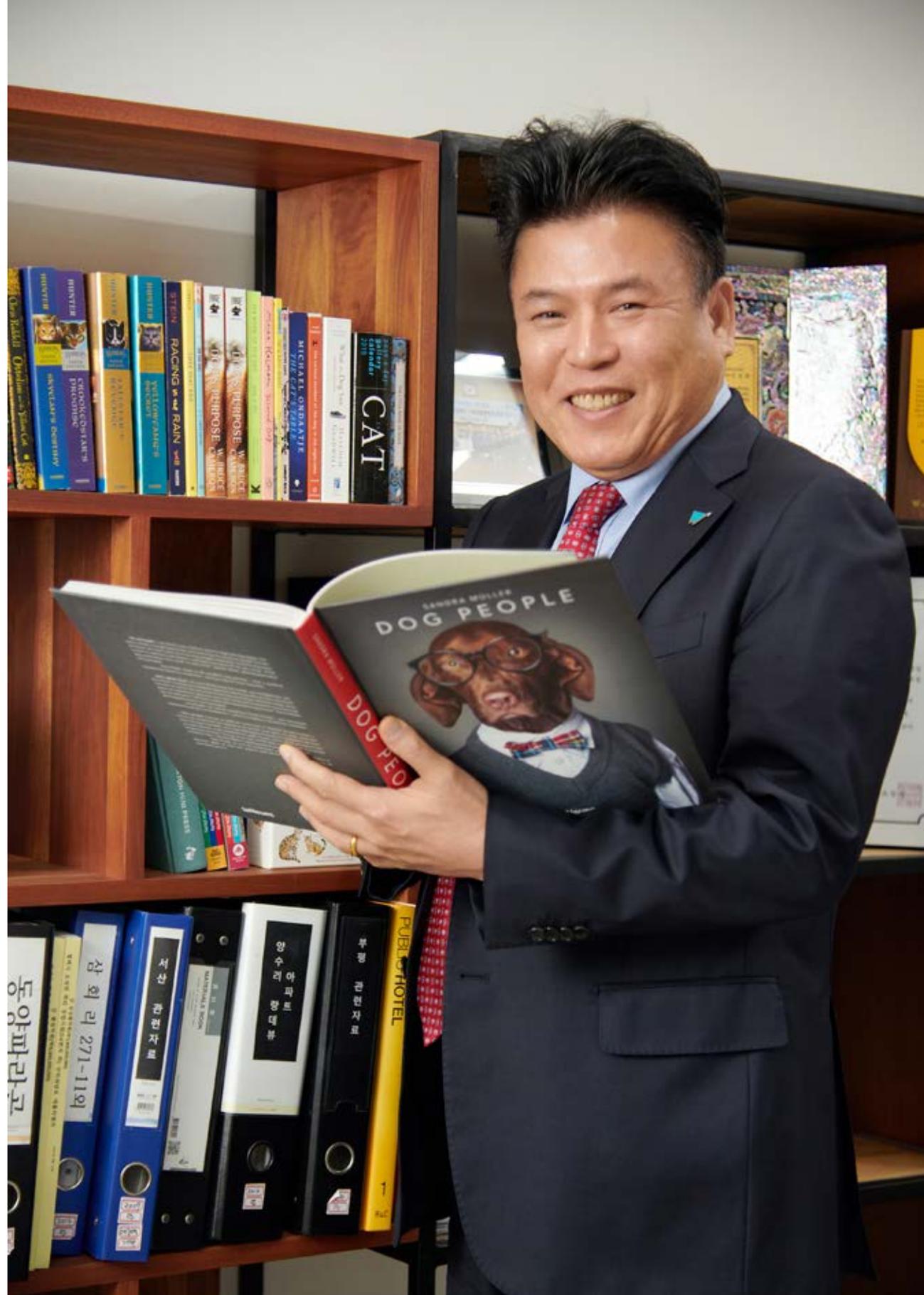
반려가족이라면 여행과 휴식마저 함께해야 마땅하다. 위드랜드는 전국 애견리조트 구축을 목표로 서울, 동탄, 강릉, 평창에 이어 하남, 강원도, 강화도 등에 애견리조트 체인을 건설 중이다. 함께라서 더 행복한 반려문화를 짓고 있는 위드랜드 이규봉 대표를 만난다.

반려가족을 위한 라이프스타일 서비스 기업
‘위드랜드’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위드랜드는 애견전문 리조트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의 건전한 이익과 애견인의 로망을 현실화하고 양과 질적으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한마디로 애견리조트의 ‘대명콘도’를 만들고자 합니다. 애견리조트의 전국망을 구축하기 위해 2024년 상반기 중 10곳의 리조트가 직영으로 오픈되며, 하반기에는 글로벌 명품 애견 기업으로의 도약과 상위 애견인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고자 강원도에 조성 중인 특급리조트를 2024년 하반기 착공하고 순차적으로 제주도, 강화 석모도에 하이엔드 애견리조트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위드랜드는 2024년 하반기를 목표로 글로벌 명품 애견 기업으로 도약하고 다양한 멤버십 상품을 출시 예정이며 3대 소비품목인 사료, 간식, 패드를 자체생산하고 유치원, 미용, 애견 전문 요양원 및 애견 영화제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제공해 위드랜드만의 최고 가성비와 품질로서 특별하고 독특한 서비스로 애견인의 로망을 현실화시키고자 합니다.

2014년 위드랜드 청평을 시작으로
위드랜드가 반려동물산업에 뛰어든
지 10년이 흘렀습니다. 반려동물 관련
기업을 일군 스토리를 들려주세요.

위드랜드 런칭에 관련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참으로 많습니다. 2017년부터 준비해서 2019년 청담동 명품거리에 당시로는 획기적으로 8층 전체를 애견 서비스 시설로 오픈했었습니다. 반려견 유모차만 지나가도 사람들이 신기하게 쳐다보는 시기였는데, 서울에서 가장 비싼 곳에 최고의 인테리어를 갖추고 멤버십 회원권을 런칭했지요. 당시에는 테스트 버전으로 3백만 원, 5백만 원, 1천만 원권을 런칭했었는데, 이 금액이 3천만 원, 5천 만원으로 잘못 소문나서 가입하고 싶어하셨던 많은 분들이 아쉬워했던 일화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 대단한 이슈가 되다 보니 애견인인 골프선수가 직접 반려견과 함께 놀러 오시고, 대기업 수석 군데서 마케팅 문의를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픈 6개월 만에 코로나19가 닥치면서 어려워졌고, 결국은 철수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국내 반려동물 관련 시장이 약 1조 원 규모였다면 지금은 6조~10조 원을 다투며 다양한 분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위드랜드가 새로운 시장과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위드랜드의 멤버십 서비스를 소개해주세요.

위드랜드 멤버십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간 다양한 시도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영업 매출을 위한 일반적인 멤버십 서비스가 아닌, 특별하고 품격 있는 위드랜드만의 멤버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창업 때부터의 목표입니다. 현재는 외형을 확장하기보다 초석을 다지는 과정입니다. 장시간 테스트와 블루오션을 개발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상반기 중 특별한 시설과 서비스로 위드랜드의 가치를 평가받고자 합니다. 1월에 오픈하는 하남점이 위드랜드를 상징하는 다양한 콘텐츠와 서비스 제공, 독특한 반려문화 확산의 징표가 될 것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드랜드 전국 지점 현황을 소개해주세요. 가장 반응이 좋은 지점, 대표지점은 어디인가요?

현재 운영 중인 롯데 동탄점, 본사인 강남점, 강릉점, 평창점 네 군데가 직영으로 운영 중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테스트 버전과 수많은 시행착오의 과정이었기에 제 스스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최고가 되려면 해야 할 것과 준비할 게 그만큼 많습니다. 모든 준비 과정을 끝내고 새롭게 오픈하는 하남점과 강릉점, 평창점의 부족한 공간과 서비스를 재정비해서 오픈하는 24년에는 더 큰 만족감을 드리며 각광받는 명소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상반기 중 이천점, 청평점, 강화도점, 석모도점을 비롯해 정예화된 직영점 10곳이 오픈 예정입니다. 현재는 막바지 오픈 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관련 기업을 운영하며 느끼는 어려움, 보람에 대해 들려주세요.

우리나라 애견인구는 1,500만 명으로 인구의 삼분의 일이고 계속해서 확산되는 추세이지만 제도적으로 현실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 업무 등 법률적 서비스가 뒷받침을 못 해주기 때문에 현행법상 규제로 인한 어려움이 큼니다. 정부도 최근 개식용 금지와 전국 지자체를 통해 애견시설을 제공하려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수의사협회와 애견연맹, 애견협회 등 모두가 애견문화를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드랜드가 아직은 부족하지만 주도적인 입장에서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 분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반려가족이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1인 가구의 증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소멸과 높은 양육비용으로 인한 핵가족화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로부터 위로와 사랑을 공유하고자 하는 인류의 본성은 더욱 커질 겁니다.

리조트, 유치원, 미용시설, 백화점 내 지점 등 위드랜드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인력의 규모와 구조 등에 대해 알려주세요.

현재 직영점 4곳을 운영 중인데 본사 인력과 매장 및 리조트 인원을 포함하면 약 80명 정도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점이 확대되면서 약 150명 정도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목표는 향후 3년 내 약 500명 정도가 위드랜드 리조트와 복합시설에서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위드랜드가 함께 일하고 싶은 인재상을 알려주세요.

학벌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순수한 열정과 도전정신, 자기개발 정신이 있다면 충분합니다.

회사와 힘을 모아 자신을 개발하고 회사에 공헌할 수 있는 역동적인 직원들이 주도하는 새로운 인재상을 확립하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과 자립 청소년을 주축으로 애견전문 기숙학원 및 전문대를 통한 인재 양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하남점 오픈과 하반기 강원도에 착공예정인 특급리조트 런칭을 기점으로 사업의 규모가 더욱 더 커질 듯 합니다. 위드랜드의 목표와 비전을 공유해주세요.

24년 1월 오픈하는 하남점을 시작으로 상반기 중 이천점, 강화도점, 강화석모도점, 청평점 등의 직영점이 순차적으로 오픈되니 반려가족들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약 6년간의 준비를 끝내고 애견문화의 혁신을 주도할 각 지점들이 하나하나 독특하고도 다양한 콘셉트로 오픈될 예정이어서 위드랜드의 존재감이 대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외 반려동물산업은 춘추전국시대처럼 1등 기업 없이 좁은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위드랜드는 처음부터 새로운 영역에 도전해 블루오션의 사업영역을 구축했습니다. 다양한 콘텐츠로 애견문화와 산업을 이끄는 선행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표님의 반려동물을 소개해주세요.

저는 스피치 믹스견과 방치된 말티즈를 입양해 인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스피치 믹스견은 6살이고, 말티즈는 8살 전후 연령의 유기견을 입양해 지금은 거의 15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위드랜드는 향후 애견전용 요양시설을 건립해 고령화 사회로 인해 돌봄능력을 상실한 어르신들의 반려견을 위탁관리해 주는 돌봄부터 다양하고 독특한 분야의 노령견 돌봄 서비스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조만간 대형견을 입양할 예정입니다.🐾

안내견과 시각장애인 파트너의 행복한 동행

삼성화재 안내견학교
박태진 교장

안내견과 반려견은 무엇이 다를까? 안내견은 태어나는 걸까, 훈련되는 걸까?

국내 유일의 안내견 양성기관인 삼성화재 안내견학교 박태진 교장에게 한 마리의 새끼강아지가 태어나 시각장애인의 파트너로 동행하다 은퇴하기까지, 그 멋진 견생의 시간을 듣는다.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삼성화재 안내견학교의 파트장인데 외부에서는 교장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해가 쉬워서 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태진입니다. 전공은 수의학이고, 이전에는 외국에서 수입하는 육류 등의 먹거리를 검역하는 검역원에서 검역 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수의사, 검역 공무원에서 안내견학교 교장까지,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되셨나요?

제가 지하철로 통학을 했었어요. 군대 갔다 오고 1996년쯤, 지하철을 탔는데 제 앞에 안내견이 탔어요. 안내견학교가 1993년에 만들어져 올해 30주년 됐는데, 1호 안내견이 1994년에 처음 나왔어요. 그러니까 1996년경 제가 안내견을 봤을 때는 아마 우리나라에 안내견이 10마리도 없었을 시기예요. 제 맞은편에 안내견과 시각장애인 파트너가 앉았는데 그때 너무 깜짝 놀랐죠. 우리나라에 안내견이 있는 것도 몰랐고, 신사분이 안내견과 앉아 있는 모습을 보니 일종의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리트리버도 그때 처음 봤어요. 개는 무슨 품종인지, 여러 가지 여쭙보고 싶었는데 숫기가 없어서 여쭙보지 못했죠. 그분이 저보다 한 정거장 먼저 내리셨는데 너무 궁금해서 따라 내렸어요. 안내견이 계단도 찾고 개찰구도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멋있다, 저런 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일을 해보고 싶다, 막연히 그런 생각을 하고 졸업을 했는데 당시에는 안내견학교에서 사람을 뽑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무원 일을 1년 정도 하다가 삼성화재 안내견학교에서 사람을 뽑는다고 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삼성화재 안내견학교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안내견학교는 기본적으로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양성해서 시각장애인의 독립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곳입니다. 큰 카테고리를 보면 장애인 보조견이라고 있어요. 장애인 보조견은 장애인의 삶을 도와주는 아이들인데, 장애인 보조견 내에는 청각장애인을 돕는 청각장애인 보조견, 휠체어 장애인을 돕는 휠체어 장애 보조견, 시각장애인을 돕는 보조견 등이 있습니다. 그중 삼성화재 안내견학교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재활과 독립적인 보행을 돕는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안내견학교에서 양성되는 안내견과 파트너의 매칭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저희 학교에서는 1년에 약 15마리의 안내견이 양성됩니다. 절반 정도는 기존에 안내견과 생활하시던 시각장애인에게 재분양됩니다. 안내견이 안내견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건 2살에서 9살 정도까지예요. 그 후 은퇴하게 되는데 예전부터 안내견을 쓰셨던 분들은 새로운 안내견이 필요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분들에게 우선 재분양해요. 나머지 절반은 신규 분양이 이뤄집니다.

보호자로서 안내견과 정이 듬뿍 들었는데 헤어지고 새로운 안내견을 만나는 과정이 어렵겠어요.

그래서 파트너 시각장애인분들에게 안내견이 은퇴하기 약 2년 전부터 얘기를 드려요. 이 강아지 곧 은퇴해야 한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고요. 은퇴

2년쯤 전부터는 안내견의 기력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또 좋은 자원봉사 가정에 나가 여생을 보내야 하니까 마음 준비를 하시게 합니다. 안내견을 키워주시는 저희 자원봉사자들도 똑같아요. 새끼강아지를 키워주시는 자원봉사자들도 있고 은퇴견을 케어해주는 자원봉사자들도 있는데, 이분들도 언젠가는 이별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미리 알려드리고 준비를 시켜드립니다.

안내견의 일생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훈련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안내견의 일생도 보통 개의 일생과 비슷합니다. 우선은 아이들이 태어나야 되잖아요. 저희는 15마리 정도 되는 엄마

아빠 개를 선발해서 데리고 있어요. 이 아이들을 통해 1년에 안내견학교에서 50~60마리의 새끼강아지가 태어나요. 엄마 아빠 개는 자원봉사 가정에서 관리되다가 발정기가 오면 교배하고 안내견 학교에서 새끼를 낳습니다. 태어난 강아지는 엄마 개와 8주 정도 같이 살아요. 8주간 엄마 젖도 떼고 이유식도 하고 기본적인 사회화 과정을 거친 후, 자원봉사 가정에서 1년간 키워주세요. 이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안내견뿐 아니라 모든 동물들이 얼마나 많은 경험을 긍정적으로 했느냐에 따라 성격이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를 안내견학교에서 보내지 않아요. 안내견 학교에서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게 한정적이잖아요. 자원봉사 가정에서 1년간 지하철, 버스, 택시 타고 쇼핑물, 학교 등에 가고, 어린아이, 어른, 노인, 장애인 등을 만나는 다양한 사회 경험을 시켜줍니다. 개들은 성격이 형성되는 시기가 태어나서 얼마 안 될 시기거든요. 이때 다양한 사회 경험을 시켜주는 역할을 자원봉사자분들이 해주십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자분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겠어요.

자원봉사 선발부터가 까다롭습니다. 일단 강아지 생후 8주 때 분양을 하면, 집합교육이라고 해서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학교에 방문해 자원봉사자 가족들이 교육을 받습니다. 이후 담당자가 한 달에 한 번씩 봉사 가정을 방문해 잘 키우고 계신지, 불편함은 없는지 체크하고, 매뉴얼과 동영상 자료도 드리면서 그분들의 스타일대로 키우는 게 아니라 저희 프로그램에 맞춰 키우게 됩니다. 이 과정이 좀 이상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강아지를 좋은 안내견으로 키우는 방법이 표준화되어 있어요. 사람과는 좀 다르죠. 사람은 가지고 있는 기풍도 있고 여러 환경에 영향을 받으니까요. 그런데 강아지를 좋은 안내견으로 키우는 건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어서, 시기에 맞춰 필요한 것을 가르치고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도와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이라는 게 안내견을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좋은 강아지, 그러니까 어떤 강아지든 이 프로그램에 따라 키우면 좋은 강아지로 자랄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대부분의 동물은 처음 만나는 세상을 두려워해요.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확인되지 않아 무섭게 느껴지는 것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과정입니다. 지하철 타기, 스스럼없이 에스컬레이터 타기, 사람들과 살아가는 환경이 강아지에게 위협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강아지들은 무척 중요한 이 과정을 거쳐 14개월 후 안내견학교로 다시 돌아와요. 이때 자원봉사자분들과 헤어지게 되는데, 굉장히 힘들어하시죠. 돌아오면 저희가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훈련을 해요.

이후 시각장애인 신청자분들을 인터뷰하고 걸음걸이 등 생활습관, 주변 평판, 성격, 집에서 학교나 직장은 어떻게 가는지 등을 검토해 알맞은 안내견을 매칭해요. 개들도 모두 성격이 다릅니다. 어떤 아이는 여자를 좋아하고, 걸음이 빠르거나 늦기도 해요. 도시를 좋아하거나 시골을 좋아하기도 하죠.

그렇게 매칭이 이루어진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달간 교육을 합니다. 신규 분양자는 첫 2주간 안내견학교에 들어와 개는 어떤 동물인지, 어떻게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양치를 시키고 배변을 치워야 하는지, 안전한 산책은 어떻게 걷는 것인지 등을 배워요. 그 후 3~4주는 저희가 시각장애인 맥으로 출장을 가요.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어디든 숙소 하나 잡고 장애인 파트너분이 아침에 깨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집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직장에 출근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일대일로 교육을 시켜드려요. 보통 한 달 정도 교육을 받으시면 사회에서 활동하는 안내견들을 보시게 되는 거예요. 이후에도 저희가 6개월마다 한 번씩 정기 사후관리도 하고요. 은퇴한 강아지는 저희가 데리고 있지 않고 자원봉사 가정으로 내보내요. 자원봉사 가정에서 여생을 보내는 거죠. 물론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지만 무척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은퇴 안내견이 죽을 때까지 저희랑 같이 케어를 해주시고, 무지개다리를 건너게 되면 함께 장례도 합니다. 학교 한 칸에 추모비도 있습니다.

안내견학교는 안내견을 번식하고, 훈련하고, 시각장애인에게 내보는 사회공헌사업을 하지만, 이 일의 상당 부분은 사회가 함께 해주세요. 새끼강아지를 키워주고, 은퇴견을 돌봐주시는 건 사회에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다른 사회공헌사업과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강아지들이 모두 안내견으로 성장하는 건 아니죠?

안내견이 되기 위한 평가나 선발의 기준이 있나요?

안내견 양성률은 35% 정도 돼요. 새로 태어난 강아지 중 30~40% 정도만 안내견이 되는데, 10마리 훈련하면 서너 마리만 되는 거죠. 안내견이 되고 안 되는 강아지가 어떤 자질을 갖고 태어났는지, 엄마 아빠한테 물려받은 기질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어떤 양육 환경을 거쳤는지가 중요해요. 개의 성격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며 만나는 모든 환경에 대해 편하게 느끼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강아지도 있어요. ‘나는 지하철은 좀 무서워, 에스컬레이터는 싫은데, 사람이 많고 낯선 사람을 만나는 건 어려워’ 하는 강아지들도 있어요. 그러면 안내견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안내견 훈련사는 강아지가 갖고 있는 자연스러움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일단 그게 되면 모든 환경에 편하게 적용하죠. 그런 아이들에게 훈련을 통해 모양을 좀 만들어주는 거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면 네가 엄청 칭찬받아, 네가 먹을 것도 얻을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고 예쁘게 만져줄 수도 있어, 그렇게 안내견의 형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강아지도 있어요. 그게 훈련만으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강아지들은 좋은 가정에 분양됩니다.

안내견이 되기 위한 훈련과정을 알려주세요.

첫째는 개의 기질이 과연 안내견이 될 만큼 충분한가, 둘째는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요. 이 두 가지가 확보되면 안내견 훈련을 시작해요. 훈련은 기본적으로 안내견으로서 갖춰야 할 여러 가지를 가르치는데, 수행을 잘 하면 안내견이 되는 거죠. 지하철도 잘 타고, 버스도 잘 타고, 에스컬레이터도 잘 타고, 사람이 많아도 크게 흥분하지 않고 편안하게 잘 있어주시는 등이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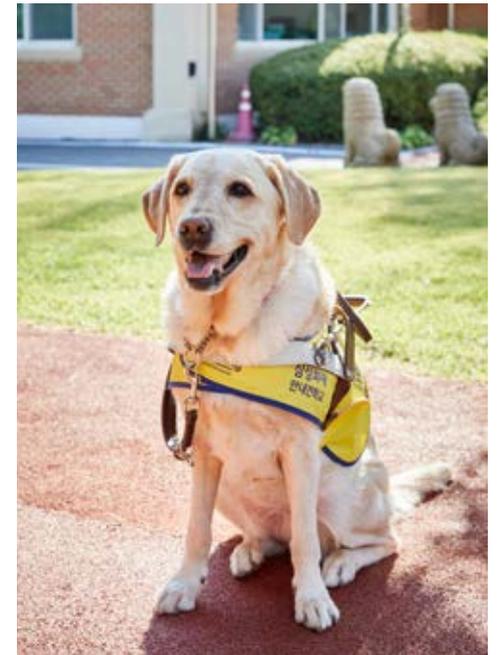
안내견과 반려견의 차이가 있나요?

저는 차이가 없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반려견 보호자들 처럼 개를 사랑하고 케어하는데 부족하지 않아요. 안내견도 자기들이 느끼는 대로 삶을 살아가요. 단지 삶의 형태가 다를 뿐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안내견을 생각하실 때 장애인을 돌보니 힘들 거라고 여기세요. 그런데 개 입장에서서는 누구나 똑같아요. 내 주인이 눈이 보이든 안 보이든 아무 상관 안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내견이 ‘이 사람이 눈이 보인다 안 보인다’를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안내견의 파트너가 되려면 한 달을 오롯이 이 개를 이해하기 위한 시간을 할애해야 해요. 보통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이 우리집 개를 키우면서 한 달을 공부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안내견 파트너분들이 보통의 반려견 보호자들보다 사랑이 부족하지 않아요. 개 입장에서 보면 주인이 사랑해주고, 내가 배웠던 것을 잘 해내면 예뻐해주잖아요. 그러면 소통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반려견과 안내견에는 차이가 없어요. 단지 조금의 룰이 주어지긴 하죠. 저희가 30년 가까이 안내견학교를 해오면서 제일 많이 부딪힌 편견이 ‘안내견은 힘들게 일하다 죽는다’, ‘본능을 억제하고 힘들게 산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삶을 희생한다’ 였어요. 그런데 개가 자기 삶을 희생할까요? 동물이 어떻게 본능을 억제하겠어요. 그저 사람이 만든 질문이고 편견일 뿐이죠.

안내견은 훈련을 통해 만들어지나요?

타고나나요?

타고나는 게 많아요. 그 다음에 키워진 양육 방식과 훈련을 통해 안내견이



됩니다. 쉽게 설명해보면, 100점 만점에 안내견이 되는데 70점이 필요하다고 쳐요. 그러면 타고나는 게 50점 정도 돼요. 만약에 30밖에 못 갖고 태어나면 70까지 되기란 어려워요. 타고난 게 10밖에 안 되면 아무리 열심히 양육해도 안 되죠. 그래서 저희가 엄마 아빠 개를 데리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아이들은 안내견이 되고도 남은 성격과 건강을 갖춘 아이들에게요. 이 아이들 중에서 번식을 하고, 그래야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보통 한 번에 5마리에서 10마리 새끼가 동시에 태어나는데, 10마리가 태어났다고 30퍼센트의 확률로 3마리의 안내견이 태어나는 건 아니예요. 10마리 모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절반 이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원봉사자(퍼피워커) 분들이 같은 매뉴얼 대로 열정을 갖고 키워도 타고난 게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자원봉사자 분들도 ‘내가 못 키워 안내견이 안 됐다’는 자책을 안 하세요. 그 분들을 위로하기 위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 데이터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동배에서



태어나 50%가 안내견이 되는 아이들이 있고, 100%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설명할 수 있는 건 유전적 영향이 크다는 것밖에 없죠.

자원봉사자(퍼피워커)분들의 역할도 중요하네요.

퍼피워커분들은 8주 된 강아지를 데려다 14개월 정도까지 키워주는데, 저희가 드린 매뉴얼 대로 키워주세요. 매일 강아지를 데리고 밖에 나가고, 지하철과 버스도 타야 하죠. 굉장히 힘든 과정이에요. 아이 한 명 키우는 거랑 같죠. 생명을 책임지는 거고, 신생아 데려다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키우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퍼피워커분들 중에는 6~7년간 안내견의 은퇴를 기다렸다가, 은퇴 후 받아서 함께 사는 가족이 50% 정도 돼요. 안내견으로 활동한 개들은 평균 수명이 14살이에요. 리트리버의 평균 수명이 12~13세인 것에 비하면 더 오래 살아요. 건강한 유전자, 긍정적인 생각, 시각장애인 파트너들과의 스킨십,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삼성화재 안내견 학교의 조직과 인력 구성에 대해 알려주세요.

저희는 새끼강아지 번식 담당자, 자원봉사 가정 담당자, 안내견 훈련사, 시각장애인 교육, 사후관리 서비스, 은퇴견 담당, 견사 담당자 등이 있고, 기타 서류 작업과 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내견 훈련사와 반려견 훈련사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있다고도, 없다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차이가 없다는 얘기는 개의

행동을 훈련시킨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누군가의 가족이 될 개와 그 보호자를 교육시킨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기도 하죠. 반려견 훈련사도 개를 교육해 개와 사람이 함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는 안내견 훈련사도 같은 일을 해요. 단지 우리의 고객은 시각장애인인 점이 다르죠.

안내견학교 훈련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우리나라의 안내견 훈련사, 안내견학교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20명이 안 돼요. 저는 안내견 훈련사, 반려견 훈련사가 되려면 사람에 대한 애정을 많이 가지라는 얘기를 해요. 왜냐면 젊은 친구들 중에 이 일을 하고 싶어하는 많은 분들이 ‘사람보다 강아지를 너무 예뻐해서 이 일을 하고 싶다’고 얘기해요. 사람과의 관계맺기를 힘들어하는 성향을 가진 분들이 이런 일에 관심을 많이 가지세요. 그러면 반쪽밖에 안 돼요. 정말 훌륭한 반려견 훈련사나 수의사, 사육사가 되고 싶다면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관계맺기의 즐거움을 느끼고, 사람을 관찰할 줄 알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해요.

저희 안내견학교 직원들도 동물을 전공한 분 등 다양한 구성원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복지를 전공한 분을 우선으로 뽑아요. 여기 들어오면 개를 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좋아하게 돼요. 그런데 저희가 늘 만나는 분들은 자원봉사자 분들, 시각장애인 분들이에요. 그분들을 만나 교육하고 상담하는 일이 주된 일이에요. 안내견학교에서 개와 함께 하는 일은 50% 정도도 안 돼요. 동물원에도 사육사들이 많잖아요. 그분들도 동물을 관리하는 일을 하지만, 결국에는 동물원을 찾는 고객들과의 소통이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훌륭한 훈련사나 수의사가 되려면 사람에 대한 애정을 듬뿍 키우라고 말씀드려요.🐾



사진 제공: 네이버 영화

지금 이 순간, '사랑하개'

<베일리 어게인 A Dog's Purpose>

세상 모든 '집사'들의 염원을 담은 작품이다. 무지개다리를 건넌 나의 반려견이 다시 내게로 돌아올 수 있다면.... 네 번의 환생을 통해 이든에게로 돌아오는 반려견 베일리는 기쁘거나 슬프거나, 생의 모든 순간에 따뜻이 체온을 나누는 존재다.

베일리, 엘리, 티노, 그리고 베일리
자고로 견생(犬生)이라 하면 먹고, 놀고, 자고, 싸는 게 전부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개도 있다. 미국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베일리는 '나는 왜 태어났을까?'를 묻는 특별한 강아지다. 그리고 개장수의 트럭 뒤 칸에서 목말라 죽어가는 순간, 이든을 만나 깨닫는다. '이 꼬마를 데리고 있기로 했어!' 누가 누구 데리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든은 베일리의 주인이 된다. 아니, 베일리는 이든의 강아지가 된다. 이든의 곁에서 한나와의 사랑을 지켜보고, 불타는 집에서 이든을 구해낸다.

하지만 견생은 고작해야 십여 년. 이든의 성장을 지켜보고 함께 바람 빠진 럭비공 잡기 놀이를 하던 베일리는 무지개다리를 건넌 순간을 맞이하고야 만다. 어라? 그런데 끝이 아니다. 다시 눈을 뜬 베일리는 두 번째 생을 살고 있다. 베일리의 새 이름은 '엘리'. 늙은 시카고 경찰견으로 물건을 찾아내고 범인을 제압하는 용감한 강아지다. 아내를 잃고 슬픔에 잠겨 있는 충직한 경찰주인을 지키다 총상을 입고, "딱히 재미는 없지만

색달랐던" 두 번째 삶과 이별한다. 그리고 세 번째 삶에선 귀가 크고 다리가 짧은 웰시코기 '티노'로 환생한다. 새 주인에게 연인을 찾아주고 행복한 가정을 일구는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한다. 그리고 또 다시 이별. 네 번째 생은 만만하지 않다. 새 주인은 귀여워서 입양했으나 마당 한켠에 '와플스'를 방치하고, 결국엔 어두운 시골길 한가운데 와플스를 유기한다. 작은 마당에서 넓은 들판으로 나온 삶은 기뻐지만, 이제 와플스는 어디로 가야할까? 하지만 단 한 번도 잊은 적 없던 이름, 이든이 있다. 들판 어디선가 '이든의 냄새'가 난다. 와플스는 이든과 재회하고, 이든은 떠돌이 개에게 '버디'라는 새 이름을 지어주고 가족이 된다. 그러나 이든은 모르고 버디는 아는 게 있으니, 버디는 베일리다. 그 옛날 터진 럭비공 놀이를 하던 바로 그 강아지.

반려, 버디, 또 하나의 가족

돌고 돌아 이든에게로 돌아온 베일리의 견생을 따라가는 <베일리 어게인>의 원제는 'A Dog's Purpose'다. 개에게 생의 목적이 있을까를 묻는 것은 어리석다. 사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다. 베일리의 여러 생이 보여주는 것은 그 순간을 즐기며 살아낸 존재,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반려의 존재이다. 개의 시선으로 옮겨보면, 충실히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 사랑하는 이들을 알아주는 것. 할 수 있는 일에 망설이지 않는 것, 그것이 삶이다. 반려견은 때로 사람이 사람에게서 받지 못하는 기쁨과 위안을 주고, 또 대부분은



인생의 한 시기를 함께 걷는 친구이자 가족이 되기도 한다. 개와 인간의 동행, 그 따뜻한 온기를 담아 낸 작품이다. 사람에게 개는 어떤 존재인지, 또 반대로 개에게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 네 번을 새로 태어나는 베일리의 생을 지켜보면 그 답을 찾게 된다.🐾



베일리 어게인 A Dog's Purpose (2017)

감독 라세 할스트롬
출연 데니스 퀘이드, 조시 게드(베일리 목소리)

라세 할스트롬 감독은 반려견과 인연이 깊다. <길버트 그레이프>, <초콜릿> 등 현실과 판타지가 버무려진 영화 연출로 존재감을 알리기 시작한 반려견이 주인공인 <하치이야기>, <베일리 어게인>을 연출하고 <베일리 어게인>의 속편인 <안녕 베일리>까지 만들었다. 제작비 2,200만 달러의 <베일리 어게인>은 전 세계에서 2억 달러가 넘는 흥행을 기록했다.



알고 보면 쓸데 있는
JOB 이야기

댕댕이, 냥냥이와 함께하는 직업

반려동물산업이 성장하며 반려견,
반려묘들과 함께할 수 있는 직업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어요.
특성화고등학교와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다양한 반려동물
관련 학과들이 개설되고 있어요.
반려동물의 생애주기 전체에 관여하는
반려동물산업 관련 직업, 사심 가득
담아 소개해요.



수의사

모든 동물들의 질병과 상해를
진단하고 치료해요. 크게는 소·말
등의 대동물임상수의사, 개·고양이
등의 소동물임상수의사, 닭·돼지 등
산업동물임상수의사, 어류임상수의사,
특수동물임상수의사 등이 있어요. 이
외 공중보건, 검역, 연구 등을 전문으로
하는 비임상수의사가 있어요. 수의사는
수의과대학(원)을 졸업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수의사로 활동할 수 있어요.



애완동물행동상담원

TV 프로그램에 등장해 유명해진
‘개통령’ 강형욱 훈련사를 아시나요?
대표적인 애완동물행동상담원이예요.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반려동물의
심리와 행동을 분석해 교정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훈련을 담당해요.
반려동물행동교정사(민간자격)라고도
불려요. 대학 등에서 반려동물 관련학을
전공하거나 전문 교육기관의 훈련을
통해 취업, 창업 등에 도전할 수 있어요.



펫시터&도그워커

반려인이 여행, 출장 등 다양한 이유로
부재하는 시간 동안 반려동물을
돌봐주는 직업이예요. 1인 반려가구가
증가하며 반려동물을 맡길 수 있는
서비스로 등장했어요. 주로 반려인의
가정을 방문해 반려동물의 식사,
배변 등의 일상을 돕고, 반려견의
경우 산책을 시켜주는 ‘도그워커’로
활동하기도 해요. 펫시터와 도그워커
모두 민간 교육기관의 자격증과정이
마련되어 있어요.



동물보건사

동물병원을 방문하면 동물의 간호와
진료를 보조하는 간호사를 만날 수
있어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간호사가
아니라 동물보건사예요. 동물에 대한
기초 검진, 자료 수집, 간호, 약물
도포와 투여, 마취, 수술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해요. 대학 등에서 동물
간호 관련 교육을 받은 후 자격시험을
통해 면허를 취득해야 동물보건사로
활동할 수 있어요.



반려동물미용사

반려동물을 가꾸고 치장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요. 애견미용사, 반려동물관리사
등으로 불리기도 해요. 반려동물의
털관리, 목욕 등을 담당해요.
특성화고등학교, 전문대학 등에 개설된
반려동물 관련학과를 전공하거나
반려동물 미용학원의 양성과정을 통해
지식과 기술을 배울 수 있어요.



펫푸드매니저

반려동물의 사료 수준이 프리미엄화되며
등장한 새로운 직업이예요. 주로
사료제조기업에 소속되어 펫푸드를
기획하거나 반려동물 수제사료·간식
판매점 등을 운영해요. 반려동물
영양학에 대한 전문성을 토대로 맛과
영양을 갖춘 사료와 간식을 만들어요.
최근에는 반려동물 인간화의 영향으로
펫베이커리, 펫카페 등 다양한
형태의 판매점을 통해 제조와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반려동물장례지도사

가족으로서 긴 시간을 함께 지낸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동물장묘법의
범위 안에서 장례절차를 상담하고
진행하는 역할을 수행해요. 현행법상
반려동물의 사체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도록 하고 있어요. 이런 방법 대신
장례지도사가 개입해 반려동물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등장했어요.
한국반려동물관리협회에서 발급하는
민간자격증을 취득해 활동할 수 있어요.



한국고용정보원 미래직업연구팀 웹진 **Beyond the WORK** ISSUE 15.

발행처 한국고용정보원 발행인 김영중 발행부서 미래직업연구팀 팀장·발행총괄 이 랑

기획 김말주 편집 김경실 디자인 전윤신 일러스트 및 이미지 셔터스톡코리아

주소 충북 음성군 맹동면 태정로6 전화 1577-7114 발행일 2023년 12월 31일 홈페이지 www.work.go.kr